

# 노인의 특성변화와 정책과제

*Changes in the Living Profiles of Older Persons and Policy Issues*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의 특성변화는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이 아니며, 그 동안 압축적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논의는 장기적인 발전방향이나 단기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어, 10여년 후로 다가온 노인인구 20% 이상의 시대, 노인인구의 규모가 1,000만명이 넘어서는 시기를 염두에 둔 구체적인 그림은 아직 그려지지 않은 것 같다. 이 시기는 사회적 의미와 파급효과가 큰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가 모두 60대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진입할 시기라는 점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좀 더 구체적인 전망치에 기초하여 10여년 후의 노인의 특성과 생활상을 예상해 본 후 정책적 함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 1. 인구학적 변화

2014년 현재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1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물학적 노화가 삶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80대 이상의 비중이 현재는 2.6%이지만 2020년에는 3.7%, 2025년에 4.5%를 거쳐 2025년에는 4.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노인인구의 절대적인 규모가 636만명에서 2020년에는 808만명으로, 2025년에는 1,033만명으로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자에 대한 새로운 정의와 관점의 정립을 필요로 하며, 노년기를 보내는 인구집단의 절대 규모로 인하여 서비스 및 재화 생산에 있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 것임을 예측케하는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혼자 생활하는 노인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25년의 경우 노인의 21.8%가 혼자 생활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225만명에 달하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다. 추계에 의하면 자녀를 모두 독립시킨 후 부부끼리 생활하는 기간도 증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sup>1)</sup>.

1) 2011년 9월 2일 개최된 제7차 미래구상포럼에서 발표된 한경혜, '베이비부머 가족에 대한 이해'에 의하면 베이비 부머세대가 경험할 빈둥우리 기간은 19.4년으로 부모세대의 1.4년에 비하여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제시한 바 있음.

표 1. 고령화 수준 및 노인의 규모

|                                  | 2014년   | 2020년   | 2025년         |
|----------------------------------|---------|---------|---------------|
| 고령화율 <sup>1)</sup>               | 12.7%   | 15.7%   | 19.9%         |
| 노인인구 규모 <sup>1)</sup>            | 6,386천명 | 8,084천명 | 10,331천명      |
| (80세 이상 인구의 비율) <sup>1)</sup>    | (2.6%)  | (3.7%)  | (4.5%)        |
| 노인중 1인가구<br>거주자 비율 <sup>2)</sup> | 20.6%   | 21.6%   | 21.8%(2,248명) |

자료: 1)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년 · 2060년.  
2) 통계청(2012). 장래가구추계: 2010~2035년.

## 2. 노인의 특성변화

미래노인의 특성변화를 체계적으로 전망한 자료는 없으며 그 단초를 제공하는 산재된 자료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구득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10여년 후의 노인의 특성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 1) 인적 자본 및 경제적 자본의 변화

노인 개인특성중 삶의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노인의 교육수준 또한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무학노인의 비중이 급감하는 반면 대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의 비중이 급증할 것이다. 즉, 현재는 무학노인의 비중이 25.0%이지만, 2020년에는 8.2%로 급감하는 반면,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은 8.7%에서 14.3%로 급증할

표 2. 노인의 교육수준 변화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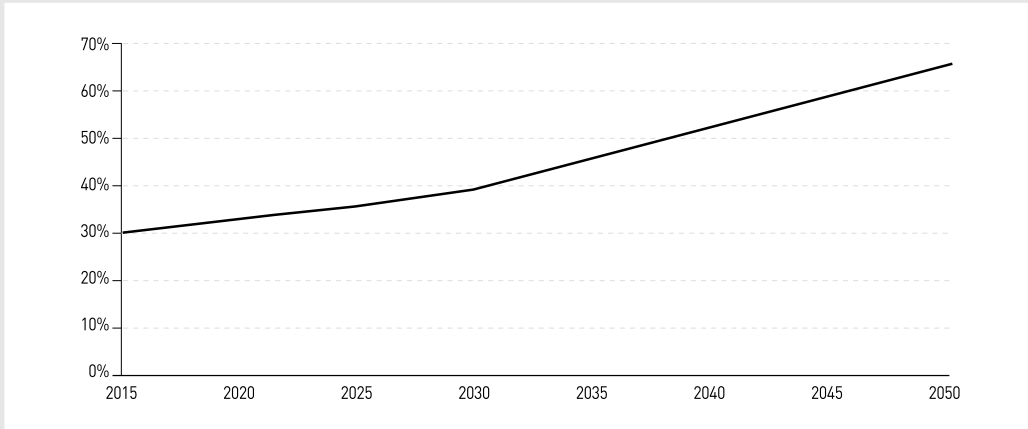
| 연도                     | 무학   | 초등   | 중학   | 고등   | 대학교 이상 | 소계    |
|------------------------|------|------|------|------|--------|-------|
| 2010년 <sup>1)</sup>    | 25.0 | 37.9 | 13.9 | 14.5 | 8.7    | 100.0 |
| 2020년 <sup>2) a)</sup> | 8.2  | 25.5 | 21.9 | 30.1 | 14.3   | 100.0 |
| 2025년 <sup>2) a)</sup> | 5.4  | 17.7 | 21.0 | 37.5 | 18.4   | 100.0 |

자료: 1) 통계청(2010). 2010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2) 정경희 · 오영희 (2000). 노인의 교육수준 변화 및 정책적 함의. 보건복지포럼, 41, pp.55~65.

주: a) 2010년의 인구주택총조사결과를 활용한 추정자료가 없고, 우리사회의 장년층의 평생교육참가가 활발하지 않음 점을 감안한다면 본 추계의 경향성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차선으로 본 자료를 제시함.

그림 1. 인구수 대비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수(65세 이상)



자료: 인구수는 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노령연금 수급자수 전망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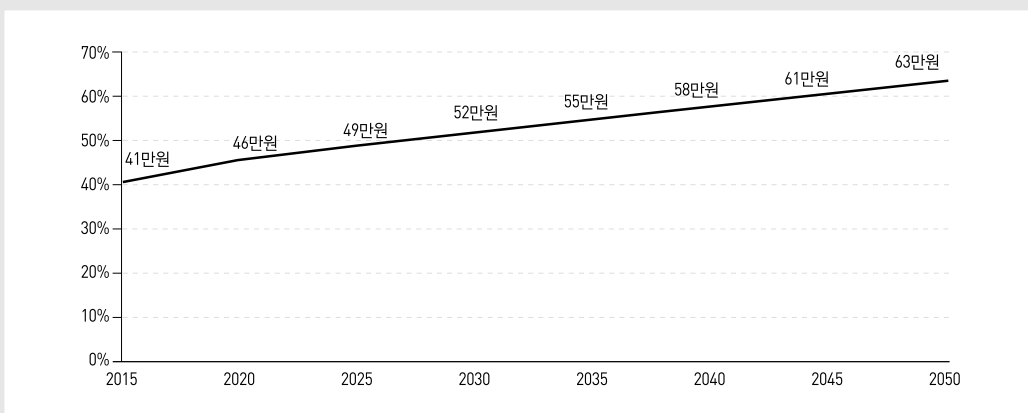
것이다. 또한 약 10년 후인 2025년에는 노인의 절반 정도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자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현재에 비하여 노인이 정보 습득이나 전달에 있어 청장년층 사회구성원과 유사한 수준

을 유지할 것이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안정적인 노후생활의 근간이 될 소득확보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1988년에 도입된 국민연금제도가 성숙함에 따라서 노인중 국민연금을

그림 2.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준 전망

(월액, 2014년 가격기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자료(2014).

수급하는 비율은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30%대 수준에서 2030년에는 40%대가 될 것이며,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은 평균 40만원 수준에서 50만원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와 노인의 교육수준 향상 등에 따른 기대수준에 비하여 국민연금 적용의 확대폭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 미래노인의 안정적 소득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꾸준히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 2)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급격한 거시적 변화는 개개인의 라이프 스타일과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는 노인의 경우

3% 미만만이 영화, 공연, 음악회, 전시회, 스포츠 경기 등의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비율이 50~54세군은 약 20%, 55~59세군은 약 13%로 10년후 노년기에 진입할 연령군에서도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여행, 관광, 나들이 회수는 70대 이상에서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80대에서는 0.5회에도 못 미치고 있다. 반면 60대 이하에서는 평균 1회를 넘고 있다. 이러한 미래노인의 문화여가활동 향유율은 절대적인 수준 자체는 높은 것이 아니지만 현재대 노인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것으로 향후 노년층의 문화여가활동의 활성화가 가능할 것임을 예측케 한다.

한편 적극적인 사회참여활동인 단체활동의 경

표 3. 중고령자의 사회참여실태

(단위: %, 횟수, 시간)

| 연령     | 영화, 공연, 음악회, 전시회, 스포츠 경기 등의<br>관람횟수 <sup>1)</sup> |     |       |       | 여행, 관광, 나들이<br>횟수 (평균) <sup>1)</sup> | 자원봉사활동 월평균<br>참여시간 <sup>1)</sup><br>(참가율) <sup>2)</sup> |
|--------|---------------------------------------------------|-----|-------|-------|--------------------------------------|---------------------------------------------------------|
|        | 전혀 없음                                             | 1번  | 2번 이상 | Total |                                      |                                                         |
| 50~54세 | 79.8                                              | 2.8 | 17.4  | 100.0 | 1.47                                 | .51                                                     |
| 55~59세 | 86.9                                              | 1.7 | 11.4  | 100.0 | 1.42                                 | .72                                                     |
| 60~64세 | 92.5                                              | 1.0 | 6.5   | 100.0 | 1.17                                 | .50                                                     |
| 65~69세 | 96.9                                              | 0.7 | 2.4   | 100.0 | 1.02                                 | .43(6.0)                                                |
| 70~74세 | 97.4                                              | 0.8 | 1.7   | 100.0 | .89                                  | .37(3.0)                                                |
| 75~79세 | 98.6                                              | 0.3 | 1.1   | 100.0 | .59                                  | .40(3.9)                                                |
| 80~84세 | 99.1                                              | 0.2 | 0.7   | 100.0 | .41                                  | .11(2.2)                                                |
| 85세 이상 | 99.5                                              | 0.2 | 0.3   | 100.0 | .26                                  | .06(0.2)                                                |
| 계      | 90.3                                              | 1.4 | 8.3   | 100.0 | 1.14                                 | .49(3.9)                                                |

자료: 1) 고령화연구패널 3차년도 KLoSa.

2)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우 현세대 노인의 39.3%만이 단체활동을 하고 있고 주요 단체는 친목 및 사교단체이다. 이에 비하여 50대의 단체활동 참여율은 59.9%로 월등히 높다. 가장 활발히 참여하는 단체의 종류를 살펴보면, 친목 및 사교단체라는 점에서는 현세대 노인과 동일하지만 취미, 스포츠 및 레저단체나 시민사회 단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30분 미만이며 참가율도 매우 낮아 평균 3.9%에 불과하다. 50대의 경우 또한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높지 않다. 이러한 결과들은 개인차원의 여가활동은 현재의 노인에 비하여 활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사회적 기여를 기본적인 목표로 하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향후 10년

내에 큰 변화가 있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보여준다 하겠다.

노인이 희망하는 노후생활유형을 살펴보면 현세대 노인의 약 절반이 건강유지를 하면서 보내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는 반면, 50대는 취미생활을 하고 싶다는 응답이 제일 높아 41.6%에 달하고 있다. 한편 소득창출활동을 언급한 비율은 노인의 19.6%, 미래노인이 19.0%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현세대 노인의 경우 아무것도 안하고 싶다는 매우 소극적인 응답도 14.6%에 달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반면 약 10여년 후 노년기에 진입할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응답이 17.0%이다. 이는 실제 이들의 소수만이 현재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에 비추어본다면

표 4. 중고령자의 단체활동 현황

(단위: 명, %)

| 연령     | 계     | 참가자의 단체별 참가율 |                     |          |                          |                |          |          |          |                |     |
|--------|-------|--------------|---------------------|----------|--------------------------|----------------|----------|----------|----------|----------------|-----|
|        |       | 참여율          | 친목<br>및<br>사교<br>단체 | 종교<br>단체 | 취미,<br>스포츠<br>및 레저<br>단체 | 시민<br>사회<br>단체 | 학술<br>단체 | 이익<br>단체 | 정치<br>단체 | 지역<br>사회<br>모임 | 기타  |
| 13~19세 | 100.0 | 35.1         | 41.3                | 30.1     | 51.0                     | 30.4           | 8.8      | 0.7      | 0.7      | 0.7            | 0.9 |
| 20~29세 | 100.0 | 48.0         | 77.7                | 19.8     | 42.8                     | 10.8           | 10.1     | 1.6      | 0.4      | 1.7            | 0.5 |
| 30~39세 | 100.0 | 49.2         | 77.5                | 23.2     | 38.5                     | 7.4            | 5.6      | 3.2      | 0.7      | 6.0            | 0.3 |
| 40~49세 | 100.0 | 57.9         | 78.3                | 26.7     | 34.4                     | 11.8           | 3.6      | 3.5      | 0.9      | 9.6            | 0.1 |
| 50~59세 | 100.0 | 59.9         | 81.7                | 27.2     | 27.1                     | 11.3           | 2.6      | 1.6      | 0.7      | 12.3           | 0.1 |
| 60세 이상 | 100.0 | 44.1         | 73.8                | 32.3     | 16.1                     | 6.8            | 1.0      | 0.7      | 0.8      | 16.3           | 0.4 |
| 65세 이상 | 100.0 | 39.3         | 69.7                | 33.4     | 14.5                     | 6.2            | 0.8      | 0.4      | 0.6      | 17.9           | 0.6 |
| 계      | 100.0 | 50.1         | 75.3                | 26.4     | 32.8                     | 11.3           | 4.6      | 2.1      | 0.7      | 8.9            | 0.3 |

자료: 통계청(2013), 사회조사.

표 5. 중고령자의 희망 노후생활 유형

(단위: %)

| 구분                     | 취미 생활 | 자기 계발 | 자원 봉사 | 종교 활동 | 소득 창출 | 손자녀 양육/ 건강유지 | 아무것도 안함 | 계 <sup>a)</sup> |
|------------------------|-------|-------|-------|-------|-------|--------------|---------|-----------------|
| 베이비 붐 세대 <sup>1)</sup> | 41.6  | 7.2   | 17.0  | 9.4   | 19.0  | 2.5          | 3.2     | 100.0           |
| 노인 세대 <sup>2) b)</sup> | 4.1   | 1.1   | 2.5   | 5.8   | 19.6  | 52.3         | 14.6    | 100.0           |

주: a) 희망하는 노후생활 유형 중 기타항목의 해당자가 1명으로 그 비중이 매우 적어 생략하였음.

b) 2011년 조사 당시 65세 이상에 대한 통계치이며, '손자녀 양육' 대신 '건강유지'에 대한 문항임.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0). 중년층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2)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2).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이들의 구현되지 않는 욕구를 어떻게 행동까지 이 어지도록 것인가가 정책적 숙제라 하겠다. 미국의 경우, 중년기에 봉사활동참여율이 최고수준을 이루다가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봉사활동 비율이 줄

어드는 연령효과(ageing effect)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2)</sup>.

중고령자의 경제적인 노후준비 현황을 살펴보면 현세대 노인의 경우 44.9%만이 준비가 되어 있

표 6. 중고령자의 노후준비 현황

| 연령     | 계     | 참가자의 단체별 참가율  |       |          |       |       |                |        |          |     | 준비 하고 있지 않음 |
|--------|-------|---------------|-------|----------|-------|-------|----------------|--------|----------|-----|-------------|
|        |       | 준비 하고 (되어) 있음 | 국민 연금 | 기타 공적 연금 | 사적 연금 | 퇴직 급여 |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 부동산 운용 | 주식, 채권 등 | 기타  |             |
| 19~29세 | 100.0 | 59.1          | 53.9  | 3.7      | 10.2  | 4.4   | 25.5           | 1.3    | 0.8      | —   | 40.9        |
| 30~39세 | 100.0 | 87.1          | 53.1  | 6.6      | 14.5  | 5.1   | 17.6           | 2.2    | 0.9      | —   | 12.9        |
| 50~59세 | 100.0 | 80.2          | 58.6  | 7.2      | 9.5   | 4.2   | 15.7           | 4.2    | 0.4      | 0.1 | 19.8        |
| 60세 이상 | 100.0 | 51.6          | 42.3  | 10.9     | 6.3   | 4.8   | 21.3           | 12.2   | 0.4      | 1.8 | 48.4        |
| 65세 이상 | 100.0 | 44.9          | 37.2  | 12.6     | 4.9   | 5.1   | 23.7           | 13.9   | 0.2      | 2.5 | 55.1        |
| 계      | 100.0 | 72.9          | 52.5  | 7.8      | 11.3  | 4.6   | 17.4           | 5.3    | 0.6      | 0.4 | 27.1        |

2) *Volunteer Growth in America: A review of trend since 1974*(CNCS, 2006). 제4차 미래구상에서 발표된 '이금룡(2011). 베이비 부머의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서 재인용.

표 7. 한국의 글로벌 고령화준비(GAP) 현황 및 전망

| 영역                        | 범주<br>(category)    | 지표<br>(indicator)                                                                                                | 2007년 | 2020년 | 2030년 | 2040년                        |
|---------------------------|---------------------|------------------------------------------------------------------------------------------------------------------|-------|-------|-------|------------------------------|
| 재정적<br>지속<br>가능성<br>(12위) | 공적<br>부담<br>(15위)   | 총급여수준 지표: GDP 대비 노인공적급여 비율<br>2040년의 GDP 대비 노인공적급여 비율 = 7위                                                       | 3.4   | 7.5   | 11.0  | 14.1                         |
|                           |                     | 급여변화 지표: GDP 대비 공적급여 비율<br>2007~2040년 기간중의 GDP 대비 공적급여 비율의<br>증가세 = 17위                                          | 1.4   | —     | —     | 7.5<br>(현재법)<br>4.8<br>(개정안) |
|                           | 재정적<br>여유<br>(10위)  | 조세여유 지표: 2040년의 GDP 대비 정부수입의 비율<br>= 11위                                                                         | 33.3  | 36.5  | 39.4  | 42.3                         |
|                           |                     | 예산여유 지표: 2040년의 정부지출 대비 노인에 대한 공<br>적급여 비율 = 13위                                                                 | 12.0  | —     | —     | 46.4                         |
|                           |                     | 채무여유 지표: 2040년의 GDP 대비 국가 순채무 비율<br>= 8위                                                                         | -35.8 | -33.4 | -36.8 | 87.4                         |
|                           | 급여<br>의존성<br>(4위)   | 급여비중 지표: 노인소득 중 공적급여의 비율<br>2007~2040년 기간의 평균 = 6위                                                               | 21.1  | 30.4  | 32.8  | 34.4                         |
|                           |                     | 급여삭감 지표: 공적 급여를 10% 삭감할 경우 빈곤에 처<br>하게 되는 노인가구의 비율 = 3위                                                          | 0.7   |       |       |                              |
| 노후<br>소득의<br>적절성<br>(19위) | 총 소득<br>(18위)       | 소득수준 지표: 근로세대 대비 노인세대의 가처분소득 비율<br>2040년의 근로세대 대비 노인세대의 가처분소득 비율= 16위                                            | 0.81  | 0.82  | 0.79  | 0.79                         |
|                           |                     | 2007~2040년 기간의 근로세대 대비 노인세대의 가처분<br>소득 비율의 변화율 = 16위                                                             | -2.9  |       |       |                              |
|                           | 소득의<br>취약성<br>(20위) | 중위소득 지표: 근로세대 대비 노인세대의 중위 가처분소<br>득의 비율(공공의료급여를 제외함) <sup>1)</sup><br>2040년의 근로세대 대비 노인세대의 중위 가처분소득의<br>비율 = 19위 | 0.59  | 0.57  | 0.53  | 0.52                         |
|                           |                     | 2007~2040년 기간의 근로세대 대비 노인세대의 중위<br>가처분소득의 비율의 변화율 = 16위                                                          | -13.2 |       |       |                              |
|                           |                     | 2007년 또는 가장 최근년도의 노인빈곤율 = 20위                                                                                    | 36.2% |       |       |                              |
|                           | 가족 지원<br>(11위)      | 가족 연대 지표: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br>2007년의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의 비율 = 9위                                                         | 37.2  | —     | —     | —                            |
|                           |                     | 자녀규모 지표: 노인의 평균자녀수<br>2007~2040년 기간의 평균자녀수의 변화 = 19위                                                             | 3.6   | —     | —     | 1.8                          |

자료: Jackson, Howe, and Nakashima(2010), *The Global Aging Preparedness Index*.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고 각종 공적연금, 예금, 부동산 등이 가장 일반적인 노후준비 방법이다. 반면 10년후 노년기에 진입할 50대의 경우는 80.2%로 매우 높은 준비율을 보이고 있어 미래노인은 현 노인세대 보다는 어느 정도 경제적인 노후준비를 한 상태에서 노년기에 진입할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sup>3)</sup>. 미래노인은 특히 공적연금을 통한 준비가 강화될 것임을 알 수 있다.

### 3. 사회의 고령화 준비현황

앞서서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특성변화와 노년기에 대한 기대와 준비현황을 살펴보았다면, <표 7>은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고령화에 대한 준비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와 10년 단위의 각 지표별 변화 예측된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준비는 아직 부족한 상태임을 발견할 수 있다. 비교 대상이 된 20개국중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12위이며, 노후소득의 적절성은 19위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는 2040년까지를 염두에 둔 준비정도이지만 향후 10년동안의 우리사회의 고령화 준비 정도를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하다.

GDP 대비 노인공적급여 비율은 2007년의 3.4%에서 2020년 7.5%로 약 2배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파악되지만 GDP 대비 정부수입의 비율은 소폭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40년의 GDP 대비 정부수입의 비율은 33.3%에서 약간 증대하는 등 재정적 여유 수준은 중간순위를 유지하

고 있다. 반면 노인의 공적 급여 의존성의 수준을 살펴보면 2007년 기준으로 노인소득의 21.1%가 공적 급여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러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는 한다. 국가에 비하여 그리 높은 것은 아니며, 2020년에는 동 비율이 30.4%, 2030년에는 32.8% 등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총소득의 규모는 근로세대 대비 노인소득의 비율이 81%에 불과하며 이는 그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아 2020년에 82%, 2030년에는 79%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추세는 비교대상 국가중 매우 낮은 수준인 것이다.

한편, 근로세대 대비 노인세대의 중위 가져분소득의 비율로 살펴본 노후소득의 취약성도 0.59에서 2020년 0.57, 2030년 0.53으로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불어 노년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녀수가 2007년의 3.6명에서 2040년에는 1.8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4. 정책적 함의와 과제

앞서 살펴본 고령화 및 우리사회의 고령화 대응 준비실태, 현세대 노인과 10년 후 노인세대의 특성변화의 검토결과 나타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65세 이상 노인의 규모와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2025년에는 80세 이상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에 달할 것이다. 둘째, 현세대 노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온 자녀의 가용성(availability)이 감

3) 물론 이러한 사실이 충분한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소하고 노년기를 배우자와만 생활하는 기간이 증대할 것이다. 따라서 노년기를 독거 내지 배우자와 독립적으로 생활해야 하는 단독가구 생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셋째, 현세대 노인에 비하여 노인의 다수가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어 정보 습득력이나 권리의식의 강화, 자아실현 욕구의 강화 등이 예상된다. 실제 많은 50대가 희망하는 노후생활로 취미생활이나 자원 봉사 등을 적시하고 있다. 넷째, 공적 연금의 역할은 계속 증대되지만 적용의 확대 폭은 그리 크지 않고 국민연금만으로 충분한 소득을 마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다각적인 노후소득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의 일환으로 소득창출활동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이다. 다섯째, 근로세대에 비하여 노인세대가 경험하는 총소득의 부족과 취약성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소득취약집단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홍석철·전한경(2013)<sup>4)</sup>에 의하면 최근 들어 고령층의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검토에 기초할 때 향후 10년간 집중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80세 이상의 후기노인에 대한 특화된 정책적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

다.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었을 때 65세 이상의 비율이 3.9%였던 점과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에 대한 사회적 관점의 변화<sup>5)</sup>를 생각해볼 때 후기노인에 대한 맞춤형 정책개발이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둘째, 현재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패러다임이 노년기에 자녀와 동거하는 것을 기본으로 설정하고 그렇지 못한 노인을 위한 정책을 잔여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라면, 향후 정책은 노년기의 긴 빈둥우리 단계를 보낸 후 혼자 생활하다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을 기본으로 설정해가야 할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노년기 단독가구 생활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동시에 그에 상응하여 비용효과적으로 식사서비스 및 가정관리서비스, 간호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sup>6)</sup>.

셋째, 개인차원에서조차 자녀 없이 배우자와 생활하거나 혼자 생활해야 하는 노년기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 중년기부터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점검과 관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배우자의 사망이나 친구, 형제·자매의 사망 등 노화에 따른 사회적 관계망의 축소에 대비하여 자신의 내면에 대한 고찰<sup>7)</sup>을 강화함과 동시에 상대

4) 홍석철·전한경 (2013).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의 심화' **한국경제의 분석**, 19(1)(2013년 4월) pp.71~113. 한국금융연구원.

5) 2013년에 이루어진 30~70대 1,000명을 대상으로한 전화조사에 의하면 노인으로 생각하는 연령기준에 대한 질문에서, 65세 미만을 연령기준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10%미만이며, 53.0%가 70~74세 연령을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이라고 응답하였음. 정경희 외(2013). **2013년 고령사회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6)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정경희 (2012). '베이비 부머의 가족생활과 노후 생활 전망' **보건복지포럼**, 187. pp.40~49에 기술되어 있음.

7) 삶을 관조하는 명상을 중요시하는 의식적 노화의 관점에서는 개인적인 대응에 주목하며,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새로운 연령철학을 정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은 Moody, H. R., "From successful aging to conscious aging", In M. L. Wykle, P. J. Whitehouse, D. L. Morris(Eds.), *Successful Aging Through the Life Span: Intergenerational Issues in Health*(pp.55~68).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2005.과 한경혜, 『신 노년층 문화와 성공적 노화』,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00.을 참고할 것.

적으로 연령과 무관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진 친구·이웃의 접촉<sup>8)</sup>을 유지·강화해가야 할 것이다.

넷째, 다양화되고 구체화될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기반을 시급히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특히 여가활동은 학습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재 조금씩 활성화되고 있는 50대의 문화여가활동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노년기까지 이어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여가활동참여 기회를 집중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며, 이에 민간영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이며, 이러한 민간영역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할 수 있는 공공의 역할도 기대된다. 10년이라는 기간은 길지 않기 때문에 실기한다면 미래 노인의 주관적인 측면의 불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혐의의 여가복지에서 벗어나 노인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하여 보람있고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라는 큰 목표 아래,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의 역할변화를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현재 세대 노인에 비하여 현재로는 조금 높은 참가율을 보이는 50대의 자원봉사활동이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감소하지 않도록 하고, 이들의 내재해있는 자원봉사활동 참여욕구를 행동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할 것이다<sup>9)</sup>.

넷째,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정착에 따라 현재 세대 노인이 경험하는 빈곤율에 비해서는 미래 노인의 노인빈곤율이 낮아지겠지만 충분하지 않은 노후소득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확보하는데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적 연금에 가입한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연금가입을 유지하고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sup>10)</sup>과 더불어 50대에 적합한 경제활동 지원책이 요구된다. 현재 중노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살펴보면 60대에서 감소한 후 70대를 넘어가면서는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50대와 60대 초반까지 적절한 정책적 개입을 통하여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sup>11)</sup>. 제조업 기능직과 같이 숙련 기능인력의 부족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50대의 고용유지, 지속적인 재교육을 통한 고용가능성의 제고, 창업 및 경영과 관련된 교육과 멘토링의 강화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10년 내에 많은 정책과제를 해결하고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예산 뿐만 아니라 인력, 서비스 제공 기관의 확보와 더불어 인식의 전환 등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8) 정경희 외(2013). 중·노년층의 삶의 질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여가복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는 '이윤경 외(2012). 노인여가복지서비스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제시된 바 있음.

10) 정경희 외(2011)(신노년층의 특성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베이비 붐 세대의 경우 51.5%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납입도 하고 있지만 12.3%는 가입은 했으나 납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65~69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6.4%, 70~74세는 38.3%, 75~79세는 26.9%, 80~84세 17.0%, 85세 이상 7.3%임. 또한 정경희 외(2013)에 의하면 일정 수준의 소득이 확보되는 적절한 경제활동을 하는 비율이 50대는 52.0%, 60대는 30.7%, 70대는 18.7%, 80대 이상은 12.2%임.

필요할 것이다. 특히 공적 영역에서 관심을 두어야 하는 집단을 도출하여 10년 내에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관심의 일순위가 되어야 하는 집단은 삶의 질이 낮고 경제, 건강, 무위 및 고독의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집단이다. 정경희 외(2013)의 연구에 의하면 삶의 질 수준이 절대적으로 낮은 집단은 50대의 5.3%, 60대의 13.0%, 70대의 32.0%, 80대의 54.4%가 삶의 질 점수가 1분위에 속하는

집단 규모로 도출되었다. 또한 빈곤, 질병, 무위의 문제를 모두 경험하는 집단은, 50대는 3.4%, 60대는 10.0%, 70대는 23.8%, 80대는 32.9%에 달한다. 이러한 절대적인 삶의 질 수준도 낮고 복합적인 문제도 동시에 갖고 있는 대상은 50대의 2.9%, 60대의 7.7%, 70대의 20.2%, 80대의 31.6%으로 50대 이상 인구의 9.6%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정책적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sup>12)</sup>. ■

12) 이러한 규모는 통계청의 최근 장래인구추계의 2014년 기준 인구수를 기초로 할 때 161만명[(50대: 7,949,223명×2.9%) + (60대: 4,584,198×7.7%) + (70대: 3,043,425명× 20.2%) + (80세 이상: 1,315,947명×31.6%)]에 해당하는 것임.